

Market Intelligence

- 1.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

- 2. 주간 이슈 3
 - 이라크 사태의 배경과 중동 정세에 미치는 영향

[참고자료] 주요 경제지표

주요 동향

◇ 미국, 고용시장 개선 지속

- 6월 실업률 6.1%로 2008년 9월來 최저기록
 - ※ 실업률(%): 6.7(3월) → 6.3(4월) → 6.3(5월) → 6.1(6월)
 - ※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(2007년) 실업률 : 4.6%
- 비농업부문 고용인원 민간 중심으로 전월대비 28.8만명 증가, 5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증가
 - ※ 비농업부문 고용증가인원(만명): 20.3(3월) → 30.4(4월) → 22.4(5월) → 28.8(6월)
 - ※ 민간고용 증가인원(만명): 20.0(3월) → 27.8(4월) → 22.4(5월) → 26.2(6월)
- 고용시장의 빠른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미연준이 현재의 출구전략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
 - ※ ING: "6.1% 실업률로 인해 Fed가 양적완화 및 금리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지 않을 것"
 - ※ PIMCO: "Fed는 정책결정시 고용증가보다는 임금상승 여부를 더 중시, 따라서 Fed는 당분간 현재 정책기조를 유지할 전망"

◇ 중국, 부동산 경기 둔화 심화

- 주요 도시(100개) 주택가격 상승률 6개월 연속 하락
 - ※ 주요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(%): 14.8(2월) → 12.4(3월) → 10.6(4월) → 8.9(5월)
- 2분기 300개 도시 토지거래 전년동기대비 29% 감소(전분기대비 14% 감소)
- 중국정부의 유동성 축소 정책으로 부동산개발 투자액 증가율도 하락
 - ※ 부동산 개발투자액 증가율(%): 12.4(2월) → 6.6(3월) → 4.5(4월) → 3.6(5월)

주요 동향

◇ 일본, 소비세율 인상(5% → 8%, 4월) 이후, 경기둔화 양상

- 소매판매, 4월 이후 2개월 연속 위축
※ 소매판매 증가율(%): 3.6(2월) → 11.0(3월) → -4.3(4월) → -0.4(5월)
- 2분기 기업 및 소비자 경기판단지수 하락
※ 제조업 단칸지수: 2(13.3/4) → 8(4/4) → 12(14.1/4) → 7(2/4)
※ 소비자 경기판단지수: -8.3(13.3/4) → -9.2(4/4) → -6.4(14.1/4) → -10.0(2/4)

◇ 브라질, 경상수지 적자는 축소된 반면 재정적자는 확대

- 5월 경상수지 적자규모 전월대비 20% 감소한 66억달러 기록
※ 경상수지(억달러): -73.8(2월) → -62.4(3월) → -82.8(4월) → -66.3(5월)
- 5월 재정적자 324억헤알로 2008년 12월來 최대치 기록
※ 재정수지(억헤알): -95.2(2월) → -130.2(3월) → -46.2(4월) → -324(5월)

◇ 한국, 상반기 수출 2.6% 증가한 2,836억달러 기록, 무역수지 203억달러 달성

- 산업별: 무선통신기기(12.7%), 반도체(10.6%), 철강(7.2%), 선박(6.2%)
- 지역별: EU(11.7%), 미국(8.2%), 아세안(5.9%), 일본(-5.4%)
- 하반기 수출은 미국 등 선진국 경기회복세 유지, 중국 등 개도국 경기반전 가능성 등으로 증가율 상승 전망
- 3/4분기 수출증가율 7% 내외로 전망(해외경제연구소)

- ◆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ISIL의 공격으로 이라크 전역이 내전 재발과 국가 분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바, 현 사태의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진행상황을 전망해 보고자 함.

1. 이라크 정부군과 반군간 대치 상황

□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IL이 이라크 3개주를 장악

- 지난 1월 이라크 안바르주의 팔루자를 장악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ISIL*은, 6월 10일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장악하였으며, 현재까지 이라크 3개주(전 국토의 20%)를 사실상 장악

* ISIL : 이라크·레반트 이슬람국가(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)

- ISIL은 시리아·요르단과의 국경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하고 바그다드를 향해 진격 중이나, 정부군의 반격 강화로 대치 중

< 현재 ISIL의 이라크 내 점령 상황 지도 >



자료: BBC.

ISIL (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)

-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수니파 테러조직으로, 현재 12,000명의 전투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.
 - 2003년 이라크 전쟁 후 이라크에 거점을 둔 알카에다 계열의 이슬람 과격조직들과 시리아의 반체제 이슬람 세력이 통합하여 결성된 것으로 알려짐.
- 이라크와 레반트 지역에 샤리아(shariah, 이슬람 율법)에 의거하여 통치되는 이슬람 국가 건설을 추구하고 있음.
 - * 레반트(Levant) : 시리아를 중심으로 레바논 · 요르단 · 팔레스타인 등 지중해 동부 연안의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지명

2. 사태 발생의 배경

1) 이라크 시아파 정부, 수니파 탄압으로 분열과 갈등 초래

- 2006년 집권한 시아파의 말리키 現총리는 수니파 정치인을 조직적으로 탄압하는 등 분파주의적 정치공세로 국가적 분열을 악화시켰다는 대내외의 비판에 직면
 - 이라크는 시아파가 다수임에도(국민의 64%) 수니파인 사담 후세인 정권의 지배하에 있었으나, 사담 몰락 후 시아파가 득세
 - 반면, ISIL이 장악한 안바르주와 니네바주는 수니파 밀집 지역으로 ISIL을 지지하는 주민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짐

2) ISIL, 시리아 내전에서 입지 약화로 이라크에서 돌파구 마련

- ISIL은 시리아 내전에서 시아파 정권을 축출하려는 수니파 반군 진영에 참가하여 세력을 확장했으나, 시리아 내전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타 반군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입지가 약해지자 돌파구를 찾아 이라크에 침입
 - ISIL은 점령지 주민들에 대한 가혹행위, 타 반군 지도부의 납치·암살 등이 폭로되어 알카에다로부터 제명됨

3) 근원적 · 역사적 배경: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대립과 갈등

□ 90%의 수니파 vs. 10%의 시아파

- 무함마드(Muhammad) 사망(632년) 후 칼리프*들이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었으나, 661년 제4대 칼리프인 알리(무함마드의 사위)가 제3대 칼리프인 우스만의 친척 무아위야가 일으킨 반란의 와중에 암살됨
- * 칼리프(caliph 또는 khalifah) : 무함마드의 종교적·정치적 권한을 이어받아 이슬람 공동체를 다스린 정교일치 체제의 최고 통치자
- 이후 이슬람 세계는 무아위야가 창시한 우마위야 왕조와 뒤이은 압바스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다수의 '수니파'와, 알리만을 정통 칼리프로 인정하는 소수의 '시아파'로 분열

구 분	수니파(Sunni) ¹⁾	시아파(Shia) ²⁾
신앙상의 차이	교리 중심주의	혈통 중심주의 : 무함마드의 사위인 알리를 정통으로 추종
이맘(종교지도자)의 지위	단순히 '기도 인도자'	아야톨라(최고위 이맘)는 가톨릭 교황에 준하는 신앙상의 권위
다수파인 국가	절대 다수의 이슬람 국가 : 전 세계 무슬림의 약 90% (아시아, 아프리카 포함)	이란(87%), 바레인(73%), 이라크(64%), 레바논(48%) : 전 세계 무슬림의 약 10%
기본적 성향	이슬람 과격 무장단체들은 거의 전부 수니파 (과격 성향)	여성의 지위가 수니파보다 높음 (온건 성향)

주 : 1) 무함마드의 언행과 가르침(sunna)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유래
 2) 혈통주의에 의거하여 '알리를 추종하는 당파'(shiat al-Ali)라는 의미에서 유래

□ '수니파 맹주' 사우디아라비아 vs. '시아파 맹주' 이란

- 이슬람의 성지(聖地) 메카를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맹주로 군림하며 시아파를 견제코자 시리아 반군에 재정지원을 하는 등 걸프지역 패권을 놓고 시아파인 이란과 대결
- 중동의 군사강국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로 군림하며 자국과 이라크 (말리키 정권), 시리아(아사드 정권), 레바논(헤즈볼라)을 연결하는 '시아파 벨트' 형성을 추진

3. 최근의 진행 상황과 향후 전망

□ ISIL의 이슬람국가 수립 선포, 이라크의 3분열 가능성

- ISIL은 6월 29일 명칭을 IS(이슬람국가)로 바꾸고, 칼리프에 의해 통치되는 이슬람국가의 수립을 선포
- 현 상황이 고착화될 경우 이라크가 중부의 수니파, 바그다드 및 남부의 시아파, 북부의 쿠르드자치정부(KRG)로 분열될 가능성

□ 중동 정세에의 영향

- 미국은 지상군의 파병을 배제하는 소극적 입장, 이란은 이라크 정부를 지원하여 정보부대를 파병하는 등 적극 개입
-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왕정국가들은 ISIL의 세력 확대와 이란의 개입 모두 반대, 시리아는 동 사태를 빌미로 반군 격퇴에 열중

□ 국제유가는 사태 발생 후 급상승, 현재는 다소 안정세

- 두바이유의 선물가격*은 ISIL의 모술 점령 이후 급상승하였으나, 리비아의 원유수출 재개 선언(7월 3일) 등으로 유가상승 압력이 감소하면서 다소 안정세

* 선물가격 추이(NYMEX 기준, US\$/배럴) : 104.85(6/4) → 108.64(7/1) → 108.19(7/3)

□ 당행 여신과 우리기업 진출에의 영향은 제한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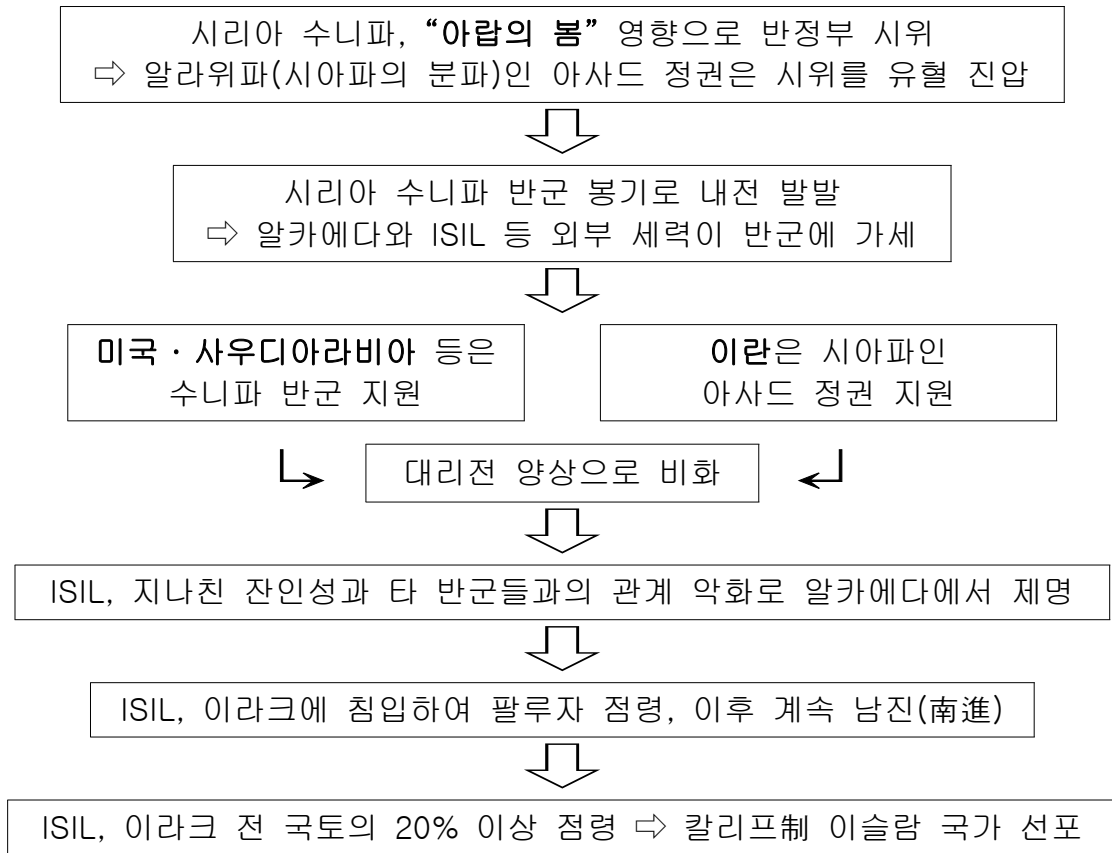
- 당행 여신과 우리기업의 참여 프로젝트 모두 아직 초기 단계이며, 사업현장이 대부분 남부에 위치해 있어 아직까지 큰 영향 없음

참고자료: 1. 이라크 사태의 전개과정과 관련국들의 입장
2. 칼리프(caliph)의 의미와 역사
3.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지역의 종교 분포도

확인자	팀 장 선우유민
작성자	선임조사역 오 경 일

<참고자료 1>

이라크 사태의 전개과정과 관련국들의 입장



<p>미 국</p>	<p>⇒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아파(이란)의 견제를 위해 ISIL을 포함한 시리아 반군 지원 ○ 그러나, ISIL의 이라크 침입으로 중동 전체의 혼란 야기 ○ 사태에 개입할 여력도 의지도 결여, 대내외의 비판에 직면 ⇒ 진퇴양난(進退兩難)
<p>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왕정 국가들</p>	<p>⇒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아파(이란)의 견제를 위해 ISIL을 포함한 시리아 반군 지원 ○ 그러나, ISIL은 칼리프제 이슬람 국가 선포로 걸프 왕정 위협 ○ 숙적인 이란은 이라크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관계 개선 조짐 ⇒ 자승자박(自繩自縛)
<p>이 란</p>	<p>⇒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이라크 시아파 정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라크에 영향력 확대</u> - 현재 이라크 정부군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 ○ 미국은 이라크 사태 해결에 이란의 협조 필요 → 핵협상에서 유리한 위치 구축 기대 : 이라크 사태의 '수혜자' ⇒ 일석이조(一石二鳥)
<p>시 리 아</p>	<p>⇒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란의 지원을 받아 반군과 대치, 민간인 학살로 비판 초래 ○ 그러나, ISIL의 이라크 침입으로 국제사회의 관심권에서 벗어남 ⇒ 어부지리(漁父之利)

칼리프(caliph 또는 khalifah)의 의미와 역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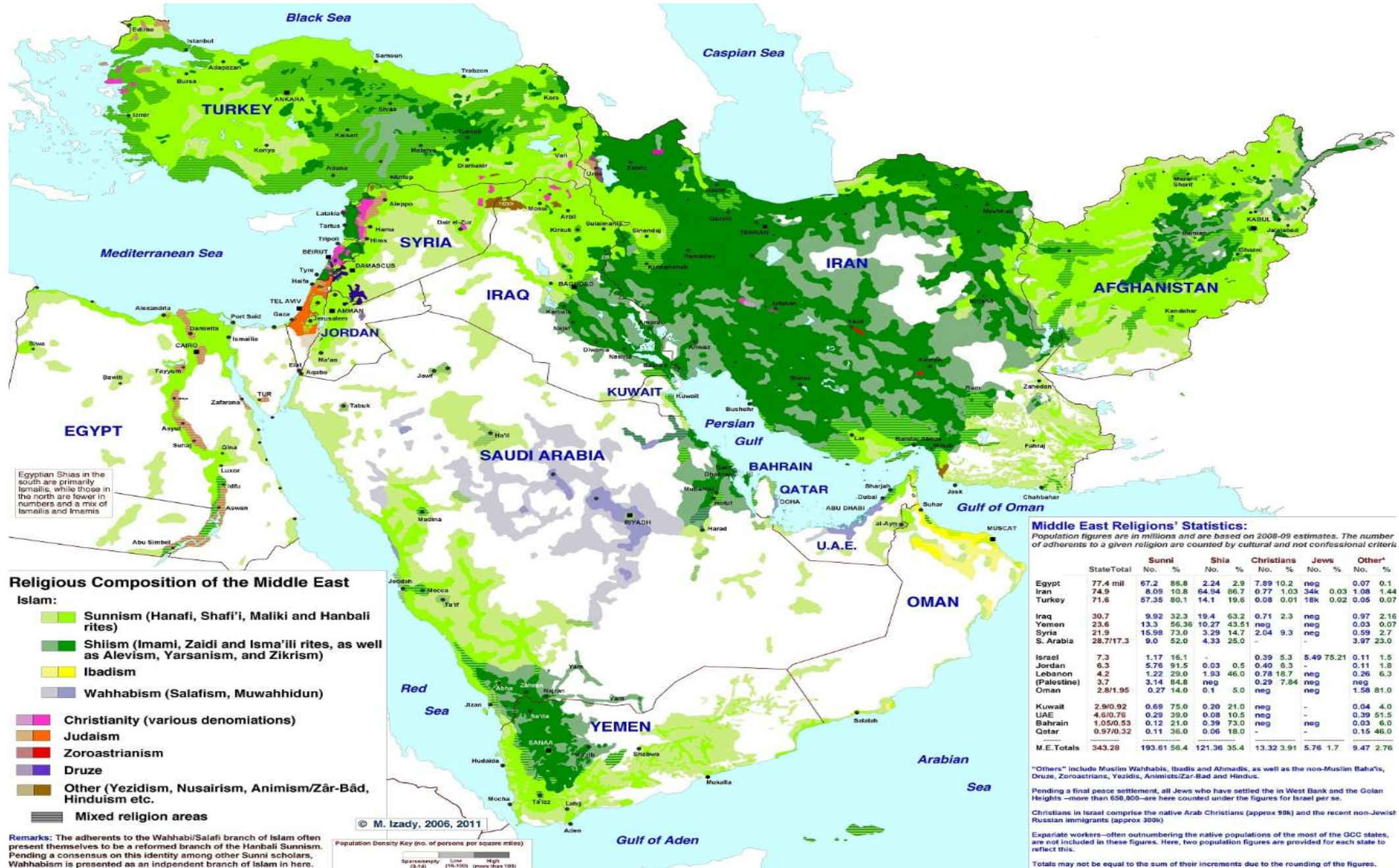
- 정식 명칭 Khalifat rasul Allah(신의 사도의 대리인) : 예언자 무함마드의 뒤를 이어 이슬람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고, 이슬람교를 수호하며, 이슬람 공동체를 통치하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**이슬람 제국의 최고 통치자**
 - 칼리프는 이슬람 공동체의 통치를 위해 **예언자 무함마드가 행사하던 정치, 종교 양면의 권한과 그 권위를 계승한 후계자들로 볼 수 있으나**, 무함마드의 예언자적 성격의 대리인이 아니라 그의 정치·군사 지도자 성격의 대리인으로 간주
 - 칼리프 칭호는 정통 칼리프 시대(632~661), 우마위야 왕조(661~750), 압바스 왕조(750~1258)로 인계되었으나, 압바스 왕조 후기에 이르러 이슬람 공동체의 종교적 수장이라는 형식적 지위로 전락
 - 1517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맘루크 왕조(이집트, 시리아 일대를 통치) 정복 후 칼리프의 권좌는 이스탄불로 이동하였으며, 1924년 3월 터키 공화국 초대 대통령 케말 아타튀르크가 칼리프 제도를 폐지

- 4명의 '정통' 칼리프들
 - **제1대 아부 바크르 (Abu Bakr, 재위 632~634년)**
: 무함마드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, 무함마드의 3번째 아내 아이샤의 아버지
 - **제2대 우마르 (Umar ibn al-Khattab, 재위 634~644년)**
: 이슬람 교리 확립에 공헌 ⇨ '이슬람의 사도 바울' / 노예의 손에 암살당함
 - **제3대 우스만 (Uthman ibn Affan, 재위 644~656년)**
: 코란의 집대성을 주도 / 반대세력인 타 부족에 의해 암살당함
 - **제4대 알리 (Ali ibn Abi Talib, 재위 656~661년)**
: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 / 결별한 옛 동맹자에 의해 암살당함

- 4명의 '정통' 칼리프들에 대한 종파간의 시각 차이
 - 수니파 : '정통' 칼리프 4명 모두를 정통으로 인정하여 존경
 - 시아파 : 제4대 칼리프인 알리와 그의 아들 후세인만을 정통으로 인정
 - * 이바디파 (오만 등) : 우스만의 칼리프 재임 기간 전체를 적법하지 못하다고 보며, 알리의 칼리프 자격도 일부 합법적이지 않다고 간주

<참고자료 3>

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지역의 종교 분포도



1 외환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6. 27	'14. 7. 4	전주비
₩/US\$	1,055.4	1,013.4	1,008.9	△4.5
₩/100¥	1,002.3	999.7	988.8	△10.9
CNY/US\$	6.0618	6.2320	6.2041	△0.0279
¥/US\$	105.30	101.37	102.03	0.66
US\$/€	1.3736	1.3625	1.3604	△0.0021

2 채권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6. 27	'14. 7. 4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2.86	2.69	2.61	△0.08
미국 국채(10년)	3.03	2.53	2.64*	0.11

* 7.3자

3 주식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6. 27	'14. 7. 4	전주비
한국 KOSPI	2,011.34	1,988.51	2,009.66	21.15
미국 DJIA	16,576.66	16,851.84	17,068.26*	216.42

* 7.3자

4 해운시장

구 분	'13년말	'14. 6. 27	'14. 7. 4	전주비
BDI 지수*	2,247	831	893	62.0
HRCI 지수**	497.5	540.8	538.7	△2.1

*Baltic Dry Index: 벌크선 운임지수

**Howe Robinson Container Index: 컨테이너선 용선지수

5 유가

(US\$/배럴)

유 종	'13년말	'14. 6. 27	'14. 7. 4	전주비
WTI유 현물	98.99	105.71	103.76	△1.95
Brent유 현물	108.34	112.67	109.82	△2.85
두바이유 현물	103.96	109.68	107.61	△2.07